

전북자치도의회,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긴급 대책회의 “참사 되풀이 없도록 대책 필요”

전북자치도로부터 사고 현황 등 상황 보고... 의정대표협의회의 “새만금공항 활주로 확장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0일 의정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등 의정대표협의회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로 보낸다”라며 “추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대표의원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서도 구호금과 법률 지원 검토 등을 당부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등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정 대표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운동용 도민안전실장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 기본계획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의정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2,500m인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대책회의 후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했다. /이만호 기자

“유족지원단 현장 활동 나설 것”

이원택 민주 도당위원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에 표하며 도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30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먼저 “29일 발생한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밝히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희생자 가족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라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참사로 큰 상처를 입은 전북도민 피해자 가족분들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당 유족지원단팀이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당 역시 중앙당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도당 “제주항공 참사, 함께 울겠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참사”라며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울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과 피해자 지원 강화 △항공 안전과 공항 관리 개선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 확장 등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오늘 퇴임하는 최정호 전개공 사장

“고향 익산발전에 헌신”

최정호 제11대 전북개발공사 사장직을 올해 12월 31일 시작하고 자신의 고향 익산발전을 위해 익산시장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3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태어난 고향 익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번에 전개공 사장직을 올해 말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전남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애도하며 근조 리본을 달고 기자실에 들른 최 사장은 그간 국토부에서 자신이 처리했던 오래 전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기자가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미터로 짧아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 활주로는 어느 공항이나 대부분 경제 여건에 따라 만드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미리 여유분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 1년 9개월간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북개발공사가 전북의 유일한 공기기업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밝혔다.

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이 이룩한 성과 중 무엇보다 큰 성과는 “2023년 전북도와 도의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500억 원 자본금 증자받은 일과 2024년에 200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를 받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본금 증자 덕분에 “공사가 국가 첨단 산업단지(2개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을 만들었으며,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반할 주택 500세대 참여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발전을 위한 TF 팀을 직원들과 만들어 1조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놓았기에 공사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대전’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현재 도내에 3,600세대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어려운 도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연속 관리 임대주택 대상 6억 원 이상의 임대료 및 144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감면해 주어 무주택 서민들



자본금 증가 · 반할주택 등 성과
“2026년 지선 익산시장에 도전”

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즘 화두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플랜 수립으로 전북개발공사 미래 핵심 동력 사업의 청사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자치도가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선봉장의 역할을 맡아 현재 도내에서 신규사업을 포함 총 33개 3조3,000억 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 사장 취임 이후 ESG 경영(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현하는 경영)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사장은 “공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간 배우고 익힌 국토부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아무 성과도 없이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사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출마할지 못하게 되어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외에도 조용식 전 전북지방경철청장,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중 도의원, 조국혁신당 임택택 등 여러 명이 출마하고자 표발을 갖고 있거나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재학생 만족도?

전북대가 최고!

6년

연속 1위

2019-2024 KS-SQ(지방국립대 부문, 한국표준협회)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 자율선택제

최첨단 교육여건

2025 QS 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3위

국내 21위

학생중심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전북대학교

전북대와 함께 꿈을 펼치세요!

2025학년도 정시모집

2024. 12. 31.(화) 9:00 ~ 2025. 1. 3.(금) 18:00